

“우리는 공업 중생 함께 살아감시다”

불교 화합을 이야기 하다

한국사회는 현재 갈등의 도그마 속에 있다. 양극화는 사회 계층을 나누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로 나뉜 진영 논리는 그 끝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남북 갈등은 그 끝이 안 보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회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과 추진본부장 도법스님과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윤원철 서울대 교수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높은 갈등지수는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과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갈등의 원인이 진영 논리에 있다고 분석했다. 스님은 “진보와 노동자, 보수와 자본가로 나뉜 진영 논리는 자신의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며 “서로 입장 차이가 극명한 두 진영의 논리는 평행선을 달린다.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가 분열로 치닫는 이유”라고 밝혔다.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는 헌법상 기본질서, 가치 질서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사회를 이끄는 것은 사람인데 사되고 분별됨이 없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특히 사회지도 부에는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공심(公心)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레 사회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는 “불교의 시각에서 보자면 모든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아집에서 비롯된다”며 “상대방이 이기적이라고 여기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이기심으로 그에 대처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모든 갈등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동력 수준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또 다른 자살자가 발생해 22명이 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태와 같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적 관점의 해결을 주문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의 법은 공평무사하다. 사회통합적인 관점과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라는 거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공업 중생”이라며 “힘겨루기가 아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진영 논리를 넘어선 공동체 회복에 불교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교의 화쟁적 관점에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이끌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기업 경영 이익은 인정해야 하며, 자본가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특히 노사문제의 ‘계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이 이들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고 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동결 등으로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기업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노사 양측이 모두 중시하면서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논의하다보면 그런 넓은 시야와 높은 차원의 원리는 잊혀지기 십상”이라며 “중생은 연기적인 존재라는 깨달음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가 노사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훌륭한 현실적인 방편도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아집·진영 논리가 갈등 원인

노사문제 연기적 접근 필요

물자·통신 등 남북교류 확대

‘도박사태’ 종단적 쇄신 절실

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부회장을 지낸 고 교수는 불교계가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교수는 “통일은 민족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물자, 통신 등 남북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며 “현 정권은 자주는 있어도 상호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남북 문제를 민족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60년이라는 세월을 따로 살았지만 한반도라는 공간과 민족이라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영원 가치”라며 “민족 통합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조망해야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남북간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족 배반’이다. 이제 구태의연한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갈등은 내재된 폭탄이다. 최근 종교평화위원회 자료에 보면 해불 등의 종교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윤 교수는 학생들의 종교 인식이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법 스님
“불교 화쟁적 관점에서
갈등 해결책 찾아야”



고준환 교수
“이제는 종단도
사부대중 참여 필요”



윤원철 교수
“종교 공멸 위기...
상생의 대책 논의해야”

종교가 본래의 모습이 아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익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종교지도자들이 우선 공멸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야 피상적인 진목 차원의 방안을 넘어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은 종교가 사회 공공선을 함께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생명’이라는 근본적 진리에 종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종교계가 함께한다면 자연스럽게 종교 간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시대의 가치, 공공선을 해결한다면 분명 종교 간 평화는 찾아온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불교계를 사분오열로 만들고 있는 도박 사태에 대해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고 교수는 “분쟁의 핵심은 결국 종권 다툼이다. 이제는 사부대중의 종단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종현도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하원으로 나눠지더라도 중앙총회에 재가자 참여가 필요하다. 이래야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존 기득권 세력들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현재 종권이든 비종권이든 자신이 종도라는 자각이 없다”며 “공심을 가진 종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 물었다. 먼저 고 교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윤 교수는 모든 것이 연기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도법 스님은 “나는 신과 인간의 골레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골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예로 들며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주문했다. “이 정신에 맞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에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真). 주체적인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주 지 성 타

관	장	총	재	무	총
학	장	덕	사	회	종
선	원	민	포	교	민
총	무	중	호	법	성
기	획	우	사	서	각
교	무	천	회	계	천
		정	신	성	정
		문	도	명	빈
		수	회	성	민
			장	명	영
			회	영	우
			장		
			회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